

북스

Books

8000m 高山위 일그러진 인간의 탐욕

에베레스트의 진실 마이클 코더스 지음

1953년 5월29일 오전 11시 30분, 뉴질랜드에서 발을 치던 서른 세 살의 청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50m)에 올랐다. 그 후 수많은 산악인이 이곳을 오르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다. 에베레스트는 인간 도전 정신의 상징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곳을 탐욕으로 몰았다.

미국 기자이자 산악인 마이클 코더스는 신간 '에베레스트의 진실'을 통해 도전정신과 낭만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에베레스트의 추악한 실상을 추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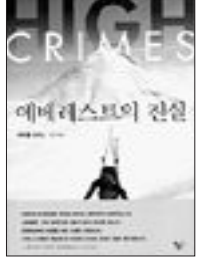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누구나 돈만 있으면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2007년 한해에만 600명 가까이 정상을 밟았다. 등반에 성공하는 것이 곧 세계적인 산악인이 되는 길로 여겨지면서 가장 신성해야 할 도전 과정에 속임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5월 미국인 의사 닐스 안테사나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중 가이드 구스타보 리사와 두 세르파에게 버림받고 실종된다. 고도 8000미터에서 실종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닐스의 딸 파비올라네는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파고들면서 가이드 구스타보가 의도적으로 등반 경력을 속였고, 그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됐다.

세르파들의 증언도 "안테사나가 가지 말라고 다리를 붙잡았으나 뿌리쳤다"와 "안테사나가 이미 숨을 거둬 남겨두고 돌아왔다"로 엮였다.

가이드는 세르파들이 안테사나를 이끄느라 분투할 때 혼자 앞질러 내려갔다. 캠프로 돌아온 이튿날



에베레스트 산 제1캠프로 이어지는 이스트 롱북 빙하를 오르고 있는 락피 프라.

가이드의 웹사이트에는 에베레스트 정복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으나 안테사나에 대한 구조 요청은 커녕 조난 사실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저자는 안테사나를 이끈 문제의 가이드가 손님의 사건을 흘려보내려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 경력을 도둑질해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에 이른다.

이 밖에도 산악인을 등쳐먹으려는 사람들도 늘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반객들을 무리하게 정상으로 이끌며 돈을 벌려는 장사꾼들이 생긴 것이다. 산소통을 무허가로 충전해 파는데, 이 산소통은 흔하게 고장을 일으켜 산악인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약물 복용으로 등반을 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마약 매매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자력이 의심스러운 일부 사람들이 가이드나 세르파로 나서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정상 등극에 눈이 멀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자 에드먼드 힐러리가 2006년 한 "나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가 끔찍한 형태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하기만 합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음사·1만6천원)
/오공목기자 kroh@kwangju.co.kr

원전 탄생 100년만에 완역 '파브르 곤충기'



장 앙리 파브르(1823~1915)가 30년에 걸쳐 쓴 '파브르 곤충기'가 원전 탄생 100년 만에 완역, 출간됐다.

현암사가 2006년 여름 1권을 낸 지 3년 반 만에 10권으로 완간된 책은 프랑스어 원본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긴 것으로 곤충학자가 원문을 한 줄도 빠짐없이 옮긴 것이 이번번이 처음이다.

번역을 맡은 김진일(68)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파브르가 다녔던 프랑스 몽펠리에 2대학에서 곤충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40년 넘게 곤충과 동고동락한 곤충학자다.

(현암사·전 10권·19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법정스님 '내가 사랑한 책들' 문학의 숲 편집부 엮음



'무소유'의 스님에게도 책만은 예외였던 것 같다. 11일 일찍한 법정(法頂) 스님이 평소 법회 등에서 언급한 책 중 50권을 골라 소개한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 출간됐다.

머리말에서는 법정 스님의 책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출가할 당시를 떠올리며 "늙도록 지니지 못한 집안에서 어렵사리 모은 책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못내 망설여졌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회상했다.

50권의 책 중에는 종교관련 책, 고전이 된 동서고금의 문학작품, 파괴와 착취를 향해 질주해가는 이

우리의 정신·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책 50권

시대의 종말을 경고하는 환경서적, 이미 절판된 책들이 포함됐다.

외국책으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다비드 르 브르통의 '감기 예방',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제러미 리프킨의 '음식의 종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등 환경, 명상, 문화, 인권 관련 작품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한국책으로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유구병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김태정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자', 허균의 '숨어사는 즐거움' 등 옛날 책과 요즘 책, 창간호부터 줄곧 구독했다는 잡지 '녹색평론' 등이 포함됐다.

(문학의숲·1만8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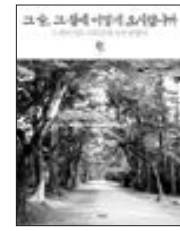
도 책에 대해 "좋은 책은 세월이 결정한다. 베스트셀러에 속아서는 안 된다", "책에 얽히지 말고 책을 읽으라",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좋은 책의 내용이 나 자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가을로 스님의 서거에는 경건이나 주석서 못지않게 자주 펼쳐보았다는 '어린왕자'를 비롯해 '꽃피와 태양', '구멍가갯집 세 남매' 등의 동화가 꽃피었고, 스님은 성경 가운데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라는 구절을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책 말미에는 스님이 평소 법회와 잡지 등에서 언급한 책을 가나다순으로 엮었다.

(문학의숲·1만8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그 숲, 그 섬에 어떻게 오시렵니까-느낌이 있는 국립공원 속살 탐방기=환경운동가이자 생태 환경 작가인 박경화씨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19곳을 답사하고 기록한 여행 보고서다. 저자는 국립공원의 비경에 감춰진 숨겨진 생명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천천히, 느릿느릿 떠나는 생태·역사 여행을 권한다. 사진과 여행정보, '생각하는 여행'을 탐으로 실었다.

(양철북·1만5천원)



▲살아있는 신-방향을 잃은 영혼을 위한 희망의 카운터펀치=복사 겹 저술가, 대중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티머시 켈러가 '신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의 대답을 전한다. 신학은 물론 철학, 역사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저자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과학자들조차도 신앙을 지키는 이유를 다양한 일화와 비유를 사용해 설명했다. 저자의 설교동영상을 담은 DVD도 함께 나왔다.

(베가북스·1만6천원)



▲한시치 체포록=탐정소설 '체포록'의 효시작이다. 괴담 전문가인 작가 오카모토 기도의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탐정 이야기이다. 밤낮없이 터지는 괴담하고 오싷한 사건들, 한편의 괴담 같은 사건의 이면에는 죽은 이의 원한과 산 자의 욕심이 뒤섞인 추악한 실상이 감춰져 있다. 오늘날의 서민 탐정격인 '오카모토' 한시치는 괴담으로 떠도는 에도의 온갖 기이한 사건을 해결한다.

(책세상·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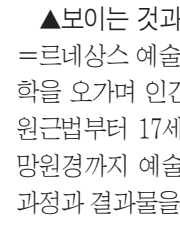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으로서 '호모 루덴스'를 소개한 요한 하위징아의 저서. 전문번역가이었던 씨가 새로 번역했다. 저자는 모든 문화의 기원에서 놀이 요소가 있으며 인간의 공동생활 자체가 하나의 놀이라고 지적한다. 철학과 시, 예술도 놀이의 성격이 있었으며, 제나 종교, 법률도 놀이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한다.

(연암사·1만3천원)



▲세계사를 움직이는 100인-진시황제부터 체계바라까지 세계를 바꾼 사람들=진시황제, 카이사르, 다빈치, 갈릴레오, 칸디, 체 게바라, 마더테레사 등 세계 역사의 뜬바퀴를 돌린 동서양 100인을 인물중심의 시각으로 서술했다. 서양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양인 인물도 고루 다루고 있다.

(침야출판사·2만3천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레오나르도에서 허블 망원경까지=르네상스 예술 전문가인 마틴 캠프 옥스퍼드대 교수와 예술과 과학을 오가며 인간의 '시각적 직관'을 풀이한다. 르네상스 시대 초기 원근법부터 17세기 식물상세도, 18세기 인체해부도, 현대의 허블 망원경까지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 고민해온 과정과 결과물을 살펴본다.

(윌유문화사·2만5천원)



▲불평등의 경제학=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성장·분배의 동반 추구를 주장했던 이정우교수가 최저임금 문제, 일본의 격차사회, 미국의 싸움이 사회 등 최근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쏘아대. 철학, 이론, 역사, 현실, 정책이 골고루 소개돼 있으며 한국적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후마니티스·2만3천원)

대인동상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재지내)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인오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사님 1층)

토지매매

| 위치 | 면적(평) | 용도 | 평당금액 |
|------|----------------|-----|---------|
| 상무지구 | 1,652㎡ (500) | 상업 | 1,100만원 |
| 상무지구 | 2,247㎡ (680) | 상업 | 1,200만원 |
| 상무지구 | 826㎡ (250) | 상업 | 1,000만원 |
| 상무지구 | 3,422 (1,036평) | 업무 | 800만원 |
| 동산동 | (22,000평) | 전답 | 10만원 |
| 나주사동 | (15,300평) | 조경 | 35만원 |
| 동림동 | 4,469㎡ (1,352) | 준주거 | 350만원 |

건물매매

| 위치 | 임대보증금 | 월세 | 매매금액 |
|------|-------|---------|-------|
| 첨단지구 | 37억원 | 3,300만원 | 85억원 |
| 동림동 | 7억원 | 1,700만원 | 32억원 |
| 상무지구 | 100억원 | 5,000만원 | 200억원 |
| 상무지구 | 26억 | 6,500만원 | 100억원 |
| 첨단지구 | 4억 | 1700만원 | 28억원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부대나 전화 주십시오★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에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비고 |
|-------|---------|-------------------------|---------------------------|
| 경리 | 여 0명 | * 초보지 및 경험자 | 월급 |
| 개발 | 남,여 0명 | * 관련전공학과 이수자 * 유 경험자 | 기본급+수당 |
| 아파트 | 여 00명 | * 유 경험자 | 여 실장 |
| 토지 | 남,여 00명 | * 초보지 및 경험자 | |
| 상가 | 남,여 00명 | * 초보지 및 경험자 | 분양 및 중개 |
| 빌딩 | 남,여 00명 | * 초보지 및 경험자 | 전직금융기관 근무 및 회사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
| 프랜차이즈 | 남,여 00명 | * 초보지 및 경험자 | 유형임근우대 |
| 경·공매 | 남,여 00명 | * 유 경험자 | 경험자 우대 |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483번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선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관리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매물만을 추천합니다.

| 구분 | 소재지 | 대지/건물 | 평 | 용도/종류 | 가격 | 비고 |
|--------|-----|-------------|-------|-------|-------|-------|
| 근린시설팀 | 자선동 | 대19,240㎡ | 20여채 | 891채 | 4층아파트 | 20여채 |
| | 자선동 | 대2871,2827 | 1297채 | 591채 | 아파트 | 1297채 |
| | 동산동 | 대21,2514 | 894채 | 398채 | 4층상가 | 894채 |
| | 동산동 | 대151,2821 | 1297채 | 591채 | 3층상가 | 1297채 |
| | 동산동 | 대320,2118 | 1094채 | 591채 | 4층상가 | 1094채 |
| | 동산동 | 대1547,23005 | 3794채 | 179채 | 4층상가 | 3794채 |
| | 동산동 | 대855,21553 | 1794채 | 794채 | 3층상가 | 1794채 |
| | 우산동 | 대12,2390 | 391채 | 291채 | 1층상가 | 391채 |
| | 우산동 | 대2088,23070 | 9994채 | 1894채 | 화기 | 9994채 |
| | 우산동 | 대2128,23780 | 4894채 | 2194채 | 화기 | 4894채 |
| 주거/재개발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 동산동 | 대1,230 | 291채 | 191채 | 1층상가 | 291채 |
| 근린주택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 | 자선동 | 대19,240㎡ | 191채 | 4층상가 | 191채 |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 전문가과정' 수강생모집
정원 50명(15주과정) 상담 및 접수 236-3400